

샬롬! 최근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있는 한국의 상황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남아공에서 김신권/김다정 선교사 드림.

남아공의 코로나 상황



▲봉쇄조치를 위해 파견된 군인들

남아공은 8월 9일 현재 봉쇄령 135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56만명, 사망자 약 1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쇄 3단계로 완화시킨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주별 이동 제한, 통금 시간 적용,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 기본 방역 수칙 등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확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 감염이 심각했던 영국과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에서 5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이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현재 남아공 선교지 교회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속에 선교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들을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선교지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PM 사랑의 나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선교지 중심의 식량 지원 사역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달(6-7월) 동안 세솔라과네, 소볼로, 마찌찌, 시야부좌, 카밀리버, 워터발 선교지의 성도 가정들에게 총 4톤의 밀리밀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에서도 이 사역의 중요함을 아시고, '사랑의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식량 지원 사역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부의 지원금으로 사역을 잘 진행했고, 곧 KPM 3차 사랑의나눔도 진행 예정이라는 공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KPM 본부에서 전세계 선교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나눔이 참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아공 관련 공중파 뉴스나 선교편지 등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돕는 손길 위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식량을 통해 주민들이 위로를 얻고 더 나아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역들

주파송 남천교회의 한 은퇴장로님 부부의 전적인 헌신으로 소볼로교회의 새예배당 건축이 준비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몇개월째 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면 초안 작업, 시공업체 선정, 자재 견적 등 여러면에서 상당 부분 준비를 해놓았지만 정부의 봉쇄조치 및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건축 준비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볼로교회가 해발 1780M에 위치한 고지대이다 보니, 바위들이 많아서 땅을 고르게 하는 포크레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는 한 차례만 작업을 했고, 이후의 부지 정리는 소볼로교회 성도들이 여러 차례 헌신한 바 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헌금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이후 성도들은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 땅을 일구었습니다. 코로나 1차 유행이 잡히고 봉쇄조치가 완화되기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때까지 더욱 기도하며 사전 준비작업을 열심히 하자고 사역자 및 성도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도른콧 교회 샘물(거제호산나교회 헌금) 프로젝트는 올해초 선교지에 공동 수로가 연결되면서 하루에 제한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코로나까지 겹쳐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풀리는대로 샘물 프로젝트도 다시 진행할 수 있게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사역들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꼼꼼하게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선교사 차량 교체



지난 2.5년간 저와 선교지를 누볐던 기아 카니발을 매각하고, 지난 7월 포드 미니밴(7인승)을 구입하였습니다. 기아 카니발 차량이 선교지를 오가며 407,000KM의 주행거리를 찍는동안, 바디 샴시 등 데미지가 심각하여 이번에 교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KPM을 통해 1500 만 원, 남 천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1000 만 원, 요하네스버그한인교회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주셔서 2600만원짜리 차량 및 자동차 보증 연장(200만원)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차량은 2018년식 포드 에베레스트 7인승 미니밴이며 주행거리는 54000KM입니다. 짐을 실을때는 시트 5좌석을 접어서 공간을 만들수도 있는 차량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차를 보러 다니는 것이 마음이 어려웠지만, 안전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고심끝에 차량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선교사를 너그러이 용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선교사가 아닌 KPM 본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방크교회 사역자 사임

저와 함께 동역하며 발방크교회를 담당했던 이노센트 전도사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당분간 발방크교회에 새로운 사역자를 청빙하기 보다는 근처에 있는 시피소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담당하며 교회를 돌보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저도 힘껏 돕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방크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 훈련 사역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신학과 목회적 준비를 점검합니다.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사역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사역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시에 던지는 질문에 사역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을 들을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우고 있지만, 그것을 소화해서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학생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방학을 이용한

세미나 혹은 수련회 등을 주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지도하는 기쁨도 크지만, 함께 시간을 내어 연합하고, 신학과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목회 적용을 위해 배운것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전도사님들에게 내용을 얘기하니 대부분 관심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제목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 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 ② 불안한 치안의 위험으로부터 선교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 ③ 선교지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 ④ 함께 동역하는 신학생들이 신학 훈련 잘 받고 선교지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⑤ 샘플, 유치원, 농장 프로젝트 사업들이 선교지 자립을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 ⑥ 선교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 ⑦ 소불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소서
- ⑧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 상황 속에 지혜롭게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